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연구

박종덕¹, 정현주^{2*}

¹청연우리병원 수간호사, ²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Study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Nurses'

Jok-Duk Park¹, Hyun-Ju Jeong^{2*}

¹Nurse, Cheongyeon Woori Hospital

²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Nam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중소병원 내 환자안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환자안전관리활동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100-300명 미만 중소병원 5곳에 근무하는 총 191명의 간호사이며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및 자기효능감은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회귀분석 결과,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안전태도($\beta=.39, p<.001$), 자기효능감($\beta=.25, p<.001$), 및 환자안전문화인식($\beta=.17, p=.006$)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41.8%였다. 따라서,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증진을 위해 환자안전태도, 자기효능감 및 환자안전문화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자기효능감, 환자안전관리활동, 중소병원간호사,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of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 nurs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91 nurses in 5 hospitals with less than 100-300 people and collected data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20.0 program, As a results, significant postive correlations were founded among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patient safety attitude, self-efficacy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factors affect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 hospital nurses were patient safety attitudes, self-efficacy, and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41.8%. Thus, it is propos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that can improve patient safety attitudes, self-efficacy, and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to promot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 hospital nurses.

Key Words :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Patient safety attitude, Self-efficacy,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Small and medium hospitals, Convergence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the Nambu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Hyun-Ju Jeong(jhjudde@nambu.ac.kr)

Received July 21,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October 5,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1]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기를 기대한다. 최근 건강과 안전한 의료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의료서비스의 제공도 증가되고 있으나 의료 제공과정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 간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직으로서[2], 간호사의 환자안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우선으로 요구되는 일이다. 또한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건보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3],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4]. 일부 간호사들은 환자안전에 대해 낙상과 관련된 부상, 환자 안위에 위협적인 사고나 화재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와 문제인식이 낮아서라고 볼 수 있다[5]. 사회 전반적으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임상현장에서 행동하는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주는 요인[6]이며,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개인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7].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문제해결에 있어 더 자신감을 가지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이룬다[8].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수행도가 높고 종합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9] 중소병원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정도와 자기효능감과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의 관계와 영향을 조사한 국내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은 간호사 인력과 관련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중소병원은 의료인의 인적 구성, 구성의 특성, 의료기관의 시스템, 환자의 중증도, 임금 등의 여러 요인으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10].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은 간호등급이 낮

은 병원의 간호사가 더 낮았는데, 중소병원간호사의 경우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점수와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점수가 낮았다[11]. 환자안전간호활동 정도도 중소병원간호사가 대학병원 간호사보다 낮았다[12]. 또한, 종합병원과 군병원 간호사[13], 그리고 대학병원 간호사[14] 모두에서 높은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과 비교하여 환자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간호 인력마저 부족한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 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파악하고,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높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중소병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나.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자기효능감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수준을 파악한다.
- 다. 중소병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라.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자기효능감 및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마.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도에 위치한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 중소병원 5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근접모집 단으로 하여,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한 21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집은 J도의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동의한 5곳의 병원을 임의 선정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8년 9월 31일까지였으며, N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 전 연구대상자 보호위해 연구 목적과 내용, 윤리적 부분을 설명하고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을 공지하여 이를 동의한 경우에만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설문지 응답의 성실성과 회수율확보를 위해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하였다. 작성 후 밀봉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기관 별로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다중선행 회귀분석의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가 189명이었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203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12부를 제외한 191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문화인식은 미국 AHRQ[15]에서 개발한 설문도구(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Kim et al.[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4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77, 본 연구 Cronbach's α =.88이었다.

2.3.2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태도는 Park, Kim, & Ham[17]이 개발한 도구를 간호사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안한 Kim[1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5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문항 중 8번, 9번은 역문항

처리를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86, Kim[18] Cronbach's α =.90, 본 연구 Cronbach's α =.73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19]이 개발한 것을 수정·보안한 Jung[2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94, Jung[20] Cronbach's α =.94, 본 연구 Cronbach's α =.83이었다.

2.3.4 환자안전관리활동

환자안전관리활동은 Lee[21]가 개발하고 Lee[22]가 수정·보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간호사의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95, Lee[22] Cronbach's α =.92, 본 연구 Cronbach's α =.89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변수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ANOVA 분석 후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자기효능감 그리고 환자안전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188명(98.4%)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2.84(\pm 8.46)로 20대가

46.1%로 가장 많았고, 기혼이 50.3%였다. 학력은 전문대졸 51.8%, 대졸 이상이 48.2%로 비슷하였다. 임상경력력은 평균 8.93(±7.50)년이었으며, 현 간호단위 근무 경력력은 평균 5.58(±6.08)년으로 1년-5년 미만이 29.3%로 가장 많았다. 근무부서는 내외과 일반병동이 61.3%로 가장 많았고 외래 및 기타,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순이었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76.4%로 가장 많았으며, 3교대 근무자가 74.3%였고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77.5%였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191)

Items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3(1.6)	32.84±8.46
	female	188(98.4)	
Ages (years)	< 30	88(46.1)	8.93±7.50
	30-40	55(28.8)	
	41 ≥	48(25.1)	
Marital state	Unmarried	95(49.7)	5.58±6.08
	Married	96(50.3)	
Level of Education	Junior collage	99(51.8)	8.93±7.50
	above University	92(48.2)	
Clinical Carrer (years)	K1	16(8.4)	5.58±6.08
	1 - <5	56(29.3)	
	5 - <10	46(24.1)	
	10- <15	28(14.7)	
	15 ≥	45(23.6)	
Career of present working unit (years)	K1	24(12.6)	5.58±6.08
	1 - <5	94(49.2)	
	5 - <10	35(18.3)	
	10- <15	16(8.4)	
Workng unit	15 ≥	22(11.5)	5.58±6.08
	Medical ward	55(28.8)	
	Surgical ward	62(32.5)	
	ICU-OR-ER	34(17.8)	
States	OPD & etc.	40(20.9)	5.58±6.08
	Staff nurse	146(76.4)	
	Charge nurse	27(14.1)	
Shift pattern	Head nurse	18(9.4)	5.58±6.08
	3 shift	142(74.3)	
	Daily & 2 shift	49(25.7)	
Education Experience	Yes	148(77.5)	5.58±6.08
	No	43(22.5)	

3.2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자기효능감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정도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은 3.58(±.36)이었으며,

환자안전태도는 3.75(±.50)였고, 자기효능감은 평균 3.72(±.54)였으며, 환자안전관리활동은 3.83(±.49)이었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Patient Safety Culture Recognition, Patient Safety Attitude, Self- Efficacy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 =191)

Variables	sub items	M±SD	M±SD
Patient Safety Culture Recognition			3.58±.36
	ward environment	3.47±.32	
	direct supervisor manager	3.77±.51	
	Communication & process	3.61±.47	
	Frequency of accident report	3.46±.71	
	Hospital environment	3.58±.49	
Patient Safety Attitude			3.75±.50
Self-Efficacy			3.72±.54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3.83±.4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은 연령($t=4.97, p=.008$), 결혼 상태($t=-4.73, p<.001$), 교육 수준($t=5.49, p=.020$), 병원 경력($t=3.12, p=.016$), 지위($t=4.11, p=.018$)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ffe 사후검정한 결과, 40대 이상 군이 20대나 30대 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병원 경력은 15년 이상인 군이 유의하게 환자안전관리활동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간 호사 군이 일반간호사나 책임간호사 군보다 환자안전관리활동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자기효능감 및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과 환자안전문화인식($r=.38, p<.01$), 환자안전관리활동과 환자안전태도($r=.59, p<.01$), 환자안전관리활동과 자기효능감($r=.53, p<.01$),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태도($r=.58, p<.01$),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자기효능감($r=.35, p<.01$), 그리고 환자안전태도와 자기효능감($r=.55, p<.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3. Patient Safety Culture Recognition, Patient Safety Attitude, Self-Efficacy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191)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M±SD	F/t	p	Scheffe
Gender	male	4.11±0.60	1.26	.210	
	female	3.74±0.50			
Ages (years)	< 30 ^a	3.77±0.45	4.97	.008***	c)a,b,†
	30-40 ^b	3.80±0.52			
	41≥ ^c	4.03±0.52			
Marital state	Unmarried	3.58±0.35	-4.73	.000***	
	Married	3.91±0.57			
Level of Education	Junior collage	3.73±0.44	5.49	.020**	
	above University	3.96±0.53			
Clinical Carrer (years)	1 < ^a	3.71±0.32	3.12	.016*	e)d)a,b,c,†
	1 - <5 ^b	3.65±0.43			
	5 - <10 ^c	3.65±0.46			
	10- <15 ^d	3.81±0.71			
	15≥ ^e	3.95±0.49			
Career of present working unit (years)	1 <	3.69±0.42	1.57	.183	
	1 - <5	3.73±0.47			
	5 - <10	3.78±0.67			
	10- <15	3.60±0.34			
	15≥	3.97±0.48			
Working unit	Medical ward	3.68±0.49	1.76	.156	
	Surgical ward	3.70±0.43			
	ICU-OR-ER	3.78±0.42			
	OPD & etc.	3.90±0.66			
States	Staff nurse ^a	3.73±0.52	4.11	.018*	c)a,b,†
	Charge nurse ^b	3.64±0.40			
	Head nurse ^c	4.05±0.42			
Shift pattern	3 shift	3.78±0.50	.05	.832	
	Daily & 2 shift	4.03±0.45			
Education Experience	Yes	3.76±0.51	.59	.554	
	No	3.71±0.48			

***p<.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Patient Safety Culture Recognition, Patient Safety Attitude, Self- Efficacy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191)

Variables	Patient Safety Culture Recognition	Patient Safety Attitude	Self-Efficacy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Patient Safety Culture Recognition	1			
Patient Safety Attitude	.38**	1		
Self-Efficacy	.31**	.55**	1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40**	.60**	.52**	1

**p<.01

Table 5. The influencing factors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191)

	B	SE	β	t	p	Adj. R ²	F	p
Constant	.24	.43			.28	.418	46.46	.001
Patient Safety Attitude	.39	.07	.39	5.66	<.001***			
Self-Efficacy	.23	.06	.25	3.76	<.001***			
Patient Safety Culture Recognition	.41	.15	.17	2.81	.006***			
		R ² =.427		Durbin-Watson : 1.51				

3.5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향 요인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병원 경력, 직위와 환자안전관리활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자기효능감을 설명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투입 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항계(tolerance)가 .65, .69, .84였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ormation factor, VIF)가 1.54, 1.46, 1.2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이 1.51로 자기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태도($\beta = .39, p < .001$), 자기효능감($\beta = .25, p < .001$), 그리고 환자안전문화인식($\beta = .17, p = .006$)은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46.46, p < .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41.8%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방안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58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3차 의료기관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 도구를 사용한 Kim & al.[16]의 3.59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ang[14]의 3.08점,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4]의 3.41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2]에서 3.40점보다 높은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환자안전태도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75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간호사[22]보다 높게 나타났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3.91점[18]보다 낮은 결과이다. 이는 환자안전 중심의 인식이 확대되고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있어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안

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기관에서의 전반적인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인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은 직속상관관리자의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9]의 연구에서도 직속상관관리자 태도가 가장 높게 나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환자안전문화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및 역할이 중요하며 꾸준히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해가는 데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안전사고보고의 빈도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23] 환자안전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건보고에 대한 병원구성원의 가치와 신념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진의 리더십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고 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는 보고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72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20]의 3.56점, Choi & Park[24]의 3.64점 보다 높은 결과이고 Han[25]의 3.77점과는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경력이 많고 지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25] 환자안전과 관련된 간호업무에 있어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정도는 5점 기준 평균 3.83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Lee[22]의 3.89점, Park[4]의 4.40점 보다는 낮은 점수이지만, Lee[21]의 3.74점 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안전 관련 항목 및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토대로 환자안전 영역과 환자안전간호활동을 강조하고 있어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이 보통 이상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병원 경력이 오래될수록, 통상근무와 2교대근무일수록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m & Kim[11]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이 간호사의 연령, 결혼여부, 임상경력,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임상실무에 대한 경험과 업무수행에 자신감과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 비중과 책임감이 커짐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 활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정도나 경력 등을 고려한 환자안전 교육과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자기효능감은 환자안전관리활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 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14,25-27]를 지지하였다. 긍정적인 환자안전태도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증진시키고,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업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증진과 업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환자안전태도, 자기효능감 및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요인의 설명력은 41.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4,11,14,22], 자기효능감 또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25-27]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안전태도와 환자안전문화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임상경험이 적고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에게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을 높여 환자안전문화를 개선하는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안전과 관련된 사고를 보고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23] 경력이 적은 간호사들의 업무 중 실수나 업무 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병원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환자안전을 최우선시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환자안전활동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26,27], 자기효능

감을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소병원간호사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는 연구가 다소 아직 미흡하므로 본 연구를 토대로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바람직한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은 기혼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병원 경력이 많을수록, 통상근무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안전태도가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태도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경력이 짧은 신규간호사와 일반간호사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국소적인 일부 중소병원에 국한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추후 연구하기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추후 직접적인 측정을 통해 객관적인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T. G. Ha. (2016). *Patient safety act*. <http://www.mohw.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OI:<http://www.law.go.kr/lsInfoP.do?lsiSeq>
- [2] B. S. Lee, S. R. Kang, & H. O. Kim. (2007). Experience of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 Application of Focus Group Methodology. *J Korean Acad Nurs* 37(1), 114-124. DOI : G704-000229.2007.37.1.012

- [3] S. J. Ha & M. J. Lee. (2019). A Study on Patient Safety Culture, Incident Reporting and Safety Care Activities of Clinical Nurses in a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Korean Society of Muscle and Joint Health*, 26(1), 35-45.
DOI : 10.5953/JMJH.2019.26.1.35.
- [4] S. J. Park, J. Y. Kang & Y. Y. Lee. (2012). A study on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5(1), 44-55.
DOI : JAKO201219240566954&dbt
- [5] Y. L. Son. (2016). (The)impact of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Care Activities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3), 509-517.
DOI : 10.5762/KAIS.2016.17.3.509
- [6] V. E. O'Halloran, S. E. Pollock, T. Gottlieb & F. Schwartz. (1996). Improving Self-Efficacy in Nursing Research. *Clinical Nurse Specialist*, 10(2), 83-87.
DOI : 10.1097/00002800-199603000-00009
- [7] S. H. Lee.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 10-20.
DOI : JAKO200823352963335&dbt
- [8] P. R. Pintrich & E. V. De Groot.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DOI : 10.1037/0022-0663.82.1.33
- [9] H. H. Park & S. Y. Kim. (2019).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nurse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J Korean Acad Adm.*, 25(2), 63-72.
DOI : 10.11111/jkana.2019.25.2.63
- [10] N. J. Lee & J. H. Kim. (2011).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among Nurses in Small-Medium Sized General Hospitals. *J Korean Acad Nurs Adm*. 17(4), 462-473.
DOI : 10.11111/jkana.2011.17.4.462
- [11] M. H. Nam & J. H. Lim. (2013). The Influences of the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Care Activities among Nurse in small-medium Sized General Hospital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 349-359.
DOI : 10.14400/JDC.2013.11.1.349
- [12] E. J. Kim. (2016). Factors affecting the Patient Safety Attitude and Safety Control on Safety Care Activities among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564-572.
DOI : 10.5762/KAIS.2016.17.7.564
- [13] H. Y. Kim & H. S. Kim. (2011). Effects of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Nursing Activities in the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4), 413-422.
UCI : G704-001792.2011.17.4.009
- [14] J. E. Jang. (2013). *Impact of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ontrol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university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DOI : 200000263971_20200618111709.pdf
- [15] AHRQ. (2004). *Hospital survey on patient culture*. AHRQ Publication.
DOI : 10.1037/t34515-000
- [16] J. E. Kim, M. A. Kang, K. A. Ann & Y. H. Seong. (2007). A Survey of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Related to Hospital Culture and Reports of Medical Error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3(3), 169-179. DOI : KINX2008048315
- [17] M. J. Park, I. S. Kim & Y. L. Ham. (2013). Development of a Perception of Importance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Scale (PI-PSM)for Hospital Employe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2(5), 332-341.
DOI : 10.5392/JKCA.2013.13.05.332
- [18] H. Y. Kim. (2016). *Effect of Awareness of Medical Accreditation System on the Safety Attitude for Pa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Seongnam.
DOI : 000002233725_20200618111938.pdf
- [19]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 R. W.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DOI : 10.2466/pr0.1982.51.2.663
- [20] A. S. Jung.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a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elf-efficacy in general hospital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http://dcollection.hanyang.ac.kr/public_resource/pdf/
- [21] G. O. Lee. (2009). *The study on nurse manager leadership and patient safety-related nursing activ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http://khu.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
- [22] Y. J. Lee. (2011). *Patient safety culture and management activities perceived by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http://eulji.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
- [23] S. D. Cho, S. E. Heo & D. H. Moon. (2016). A Convergence study on the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Nursing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125-136.
DOI : 10.15207/JKCS.2016.7.1.125
- [24] J. Choi & H. J. Park. (2009).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in Schoolwork. *J Korean Acad Nurs Admin*, 15(1), 37-44.
DOI : KINX2009069555
- [25] A. L. Han & S. H. Gweon. (2016).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8(1), 12-21.

<http://www.riss.kr/link?id=A10366770>

- [26] Y. E. Kim, G. H. Suh, S. H. Choi & S. Park. (2020).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afety Culture Perception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mong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Units. *Crisisotomy(KRCEM)*, 16(4), 33-44.
- [27] G. Y. Gwoen & B. J. Oh. (2019). Effects of 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and Self-efficacy on th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Nurses. *Korean Acad Nurs Admin*, 25(2), 106-11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

박 종 덕(Jong-Dcuk Park) [정회원]



- 2012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9년 2월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7월 ~ 2012년 7월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사
- 2014년 7월 ~ 2018년 3월 : 광양사

량종합병원 팀장

- 2020년 2월 ~ 현재 : 청연우리병원 수간호사
- 관심분야 : 응급간호, 임상간호
- E-Mail : dizzy0103@naver.com

정 현 주(Hyun-Ju Jeong) [정회원]



- 1991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1년 8월 ~ 2013년 2월 : 전남대

학교병원 간호사

- 2013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임상간호, 간호문화
- E-Mail : jhjuddee@nambu.ac.kr